

투데이

“광주에 아시아언론박물관 만들자”

광주·전남 언론인회 전일빌딩 자리 설립 제안 신문방송 자료·역사·기술 전시 등 콘텐츠 구성

광주·전남 퇴직 언론인들의 모임인 광주·전남 언론인회(이하 언론인회)가 광주에 '아시아언론박물관'을 설립하자는 제안을 하고 나섰다.

언론인회가 언론박물관 조성 장소로 지목한 곳은 조만간 철거되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연계한 주차장 및 문화관련시설이 들어설 전일빌딩 자리다. 광주일보의 전신인 옛 전남일보가 입주했던 건물로, 1980년 언론 통합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무자비한 진압과정을 취재·보도했던 격동의

현장이자 광주 현대사의 중심에 자리했던 터이기 때문이다.

또한, 전일빌딩 자리에 아시아문화전당과 연계한 문화관련 시설이 들어설 계획인 만큼 그곳에 언론박물관이라는 콘텐츠를 담아 아시아 문화전당과 함께 광주의 대표적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언론인회는 새로 설립될 언론박물관에는 광주를 비롯한 아시아 각 지역의 신문과 방송 자료 및 신문·방송의 발전 역사와 기술 전시 등 다양한 콘텐츠를 담아내는 구상을

갖고 있다.

광주·전남 언론인회 조동수 회장은 “국내에는 조선일보가 운영하는 유비쿼터스 박물관과 동아일보가 운영하는 신문박물관이 있지만, 사실상 두 언론사의 사설 언론박물관일 뿐 공공성이 없는 게 한계”라며 “광주가 아시아 중심도시로 발돋움하는 만큼 이제 광주에도 아시아를 대표하는 아시아 언론박물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이러한 제안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 회장은 이어 “전일빌딩은 호남 언론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건물”이라며 “호남 언론사의 중심인 유서깊은 건물에 언론박물관을 만든다면 아시아문화전당과 함께 광주의 대표적인 문화명소가 되는 것은 물론 지역 언론산업의 모태가 되고 후배 언론인 양성에도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언론인회는 앞으로 전·현직 편집국장 모임인 '광주·전남 언론인 포럼'과 현직 기자들의 단체인 '광주·전남기자협회' 등과 함께 협의를 하는 한편 문화관광부와 광주시에 '아시아언론박물관' 설립을 건의할 계획이다.

한편, 미국 워싱턴 펜실베이니아 거리에는 뉴스 및 저널리즘 박물관인 'Newseum'(News+Museum)이 조성돼 지난 5세기 동안의 뉴스 역사·기술 등을 전시,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州) 아헨의 언론박물관은 언론의 '호적사부소'로 불릴 만큼 세계 각국의 16만가지 신문들이 전시돼 있다. /최권일기자 cki@

광양항에 국내 최대 지붕형 태양광발전소

여수광양항만공사 100억 투입...연 263만kWh 전력 생산

광양항에 국내 최대의 지붕형 태양광발전소가 들어섰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15일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월드마린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이상용 광양시장, 이상조 전남기자협회 등과 함께 협의를 하는 한편 문화관광부와 광주시에 '아시아언론박물관' 설립을 건의할 계획이다.

한편, 미국 워싱턴 펜실베이니아 거리에는 뉴스 및 저널리즘 박물관인 'Newseum'(News+Museum)이 조성돼 지난 5세기 동안의 뉴스 역사·기술 등을 전시,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州) 아헨의 언론박물관은 언론의 '호적사부소'로 불릴 만큼 세계 각국의 16만가지 신문들이 전시돼 있다. /최권일기자 cki@

로는 국내 최대 규모고, 전략생산량은 연 263만kWh로 870가구(가구당 연평균 300kWh 기준)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지난해 10월 동시발전과 '신재생 에너지 협약'을 맺고 지난 9월 공사를 시작했다. 1단계로 100억원을 들여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화물조작장(CFS) 8개동과 동측 배후 물류단지에서 마련된 국제물류센터 지붕의 유휴시설에 결정질과 박막형 태양광발전시설을 동시에 설치했다.

광양항은 일조량이 전국 평균보다 10% 이상 높고 항만 내 건물들의 넓이는 지붕을 활용할 수 있어 태양광발전사업의 적지로 평가받아 왔다.

공사는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적극 동참하면서 지구 온난화를 초래하는 이산화탄소를 줄여 광양항을 국제적인 그린 포트로 육성하기 위해 태양광발전 규모를 최고 40MW로 늘릴 계획이다. 이상조 시장은 “향후 광양항내 동측과 서측 항만배후물류단지에 2~3단계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부취재본부=박영진기자 pyj4079@



광주공동체 19인의 원탁회의 민선5기 광주시의 시정 성과 평가와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제5차 광주공동체 원탁회의'가 15일 광주시청 회의실에서 열렸다. 지난 6월에 이어 6개월 만에 열린 이날 회의에는 김운태 시장과 시민·사회단체,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전남도내 공원·정류장 흡연땀 과태료 2만원

도의회 조례안 상임위 통과

전남도의회가 도시공원과 어린이 놀이터, 택시 승강장과 버스정류장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례안을 상정해 본회의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남도의회는 15일 서정창(완도 1·민주) 의원 등 52명이 발의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안' 등을 상임위원회인 기획사회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로 넘겼다.

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구체적인 금연구역 지정과 과태료 부과를 통해 금연구역을 조성하고 시민들의 간접 흡연의 피해를 방지 하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전남도는 도시 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 학교 정화구역, 버스정류장·택시승강

장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고시하도록 했다.

예초 조례안은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했지만 의원들은 도내 흡연자들이 적지 않다는 점을 들어 과태료를 2만원으로 인하는 수정안을 발의, 통과시켰다.

전남도의회는 또 조례안 통과 뒤 1년간의 유예 기간을 두도록 했다. /김진수기자 dok2000@

김윤옥 여사 사촌 김재홍씨 구속

제일저축은행서 4억 수수...현정부 두번째 대통령 친인척 비리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은 14일 영업정지된 제일저축은행 유동천(71·구속기소) 회장으로 부터 로비 청탁과 함께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이명박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오빠 김재홍(72) KT&G 북지재단 이사장을 구속 수감했다.

현 정부 들어 대통령 친인척이 비리 혐의로 구속된 것은 국회의원 공천 대가로 30여원을 받아 가로챘던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 여사 사촌언니 김옥희(75)씨에 이어 두 번째다.

이날 김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벌인 서울중앙지법 김상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

김준규 전 검찰총장 을 초 이국철과 접촉

김준규(56) 전 검찰총장이 총장으로 재임하던 을해 초 이국철(49·구속기소) SLS그룹 회장과 접촉한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검찰 등에 따르면 김 전 총장은 서울 강남의 한 레스토랑에서 문환철(42·구속기소) 대영로직스 대표를 대동하고 나온 이 회장과 만나 식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씨는 이 회장으로 부터 로비자금으로 7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최근 구속됐다.

김 전 총장이 이 회장을 만났을 당시에는 이 회장이 2009년 창원지검의 SLS그룹 수사에서 드러난 분식회계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는 중이었다.

퇴임 후 미국에서 생활하다 최근 귀국한 김 전 총장은 이에 대해 언론에 자신의 입장을 밝히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김준규 전 검찰총장 을 초 이국철과 접촉

김준규(56) 전 검찰총장이 총장으로 재임하던 을해 초 이국철(49·구속기소) SLS그룹 회장과 접촉한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검찰 등에 따르면 김 전 총장은 서울 강남의 한 레스토랑에서 문환철(42·구속기소) 대영로직스 대표를 대동하고 나온 이 회장과 만나 식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씨는 이 회장으로 부터 로비자금으로 7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최근 구속됐다.

김 전 총장이 이 회장을 만났을 당시에는 이 회장이 2009년 창원지검의 SLS그룹 수사에서 드러난 분식회계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는 중이었다.

퇴임 후 미국에서 생활하다 최근 귀국한 김 전 총장은 이에 대해 언론에 자신의 입장을 밝히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불법조업 벌금 브라질 318억 vs 한국 1억...처벌 강화해야

정부가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나선 가운데 브라질 등 일부 국가는 무허가 조업에 '벌금 폭탄'을 부과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외교통상부가 15일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의 홈페이지를 통해 외국 선박의 불법조업에 관한 주요국의 규정을 살펴본 결과 브라질은 어업 관련 조약을 체결한 상대국의 선박이 불법조업을 할 경우 최고 318억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또 인도네시아도 무허가 조업에 '26억원 이하의 벌금이나 6년 이하의 징역(상대국과 합의시)', 금지지구 사

중과 일본은 우리나라와 처벌 규정이 대동소이하다. 중국은 88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일본은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을 불법 조업한 외국 어민에게 부과하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불법조업을 근절하려면 어업협정을 체결한 상대국과 처벌 수위를 맞추면서도 불법어업으로 인한 이익보다 처벌을 훨씬 무게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경매특자

- ◆ 경매 배우면서 일하실 분
- ◆ 20년 경매비법 노하우 전수
- ◆ 유치권등 특수물건만 전문 투자
- ◆ 공동으로 경매에 투자 하실 분

주|오천경매
투자 연구소
OC & A Investment Institute
H·P 011 605 5000 TEL. 062 525 5000
광주광역시 동구 수기동 23-2번지
E-mail : csg5000@hanmail.net

신병으로 고통을 받고 계십니까

내가 아닌 다른 존재에 의해 시달리는 분(병의,신병)

- ◆ 우울증 / 불안 / 대인 공포증
- ◆ 환청이 들리시는 분
- ◆ 불면증 / 학습증진
- ◆ 기억력 회복 / 주벽이 심하신 분
- ◆ 병원에서 치료가 불가능하신 분

최면요법으로 병의퇴치 등등 배우실분

무등산 길상사 주지 법공
문의 062-228-6606, 010-3747-6606

제7회 모범시민·단체대상 수상자 공모

(개인·단체 : 질서·친절·청결부문)

광주시민사회단체총연합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질서·친절·청결 부문에 공로가 크신 개인과 단체를 표창하고자 다음과 같이 대상수상 후보자를 공모합니다.

- 다 음 -

- 접수마감 : 2011년 12월 22일(목) 오후 5시 까지
- 접 수 처 : 광주시민사회단체총연합 사무실
- 구비서류 및 양식 : <http://www.gjngo.kr//> 커뮤니티 게시판 공지사항
- 기타문의 : 062-227-0402, 011-2627-4702

광주시민사회단체총연합

공무원 특별자금

무조건 기복서비스 · 개인 맞춤형 상담의 철저

- ◆ 대출대상 | 공무원, 교직원, 사립교직원, 군무원
- ◆ 대출금액 | 2백만~5천만원 (무보증/무담보/무조회)
- ◆ 대출금리 | 년 6%정도 (천만원당 월이자 5만원선)
- ◆ 대출기간 | 1년~10년(본인 선택 연장 가능)
- ◆ 과다대출 | 연체(등금미납)자도 해당

고금리 대출 이용 중 이시면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세요!

부동산 담보대출

대출한도 실거래가격 선순위 대출시세 90%에서 선순위 대출금 차감한 금액까지 가능
대출금액 선순위 - 년 5%~7.5%(은행금율) / 후순위 - 월 1.2%~3%

국민금융 대표 1544-9430 담당 010-5554-2100

공무원 대출

무방문 · 무담보 · 무보증 · 무조회기록

- 대상 - 공무원, 군무원, 교직원
- 금액 - 3백만 - 4천만 (추가대출가능)
- 금리 - 연 5%~7% (천만원 월이자 5만원 미만)
- 기간 - 1년~10년 (퇴직기간까지 연장가능, 본인선택)
- 사금융이용자 제1금융권으로 전환가능 (과다대출 포함)

APT 한도 : KBSI세-80%+a (60%) 전세권 한도 : 보증금의-80%
담보대출 금리 : 연 3.93%~ 담보대출 금리 : 연 5.9%~

★개인신용도에 따라 금리 및 대출비율은 변동 될 수 있음★

흥국금융 대표 1544-5248 | 담당 010-7112-3135